

# “신명의 경지에서 佛音 연출하죠”

“염불이 아니라 여염불이야 여염 불.. 부처님 생각하는 것.”  
40년을 방송가에서 살아온 박용기 위원(63세)은 불교방송의 인기프로 ‘고승 열전’ 연출에 여념이 없다.  
스님처럼 삭발한 노 연출가는 방송에 취해 온몸이 들쭉거리고 그에따라 의자가 흔들리는 신명의 경지속에 있다.  
리허설부터 호롱을 치던 박위원은 성

박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털면 되는 삼 을 울타리치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사 상은 등근 원이며 하나라고 말한다.  
20대 후반 자유당시절에 스님이 되려 다 효봉스님에게 일언지하 거절당한 것 이 지금도 한이 된다 그는 지나친 무 욱도 병이었을까. 음향효과와 연출, 음 악 등 모든 분야를 섭렵하여 탁월한 경 지를 인정받은 40년 방송인으로 살펴



## 산문박의 禪

BBS 방송위원 박용기 씨

우들의 조그마한 실수도 놓치지 않고 음 악 효과 연출등 1인 3역을 소화하며 좋 은 방송을 향한 몸짓이 거세다. 물입되 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손놀림은 허공에 서 한치각 매달고, 그는 성우들과 완전 히 합일되어 있다.  
두시간 넘도록 스튜디오 녹음을 끝낸 박위원은 다음주 녹음을 금요일로 예약 하고 밖으로 나온다.  
“힘들어. 이제는 더이상 못하겠어. 젊 은 사람들에게 걸리져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겐 있어서 이 프로를 회향 하는 방송으로 만들고 있지.”

직책한번 생각해본 적도, 욕심부러본 적도 없이 골레를 초탈하며 지내왔다. 여려하게 살아온 그를 방송가에서 ‘인 간문화재’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는 것은 동양화처럼 여백이 있어 야 돼. 요즘은 어떻게 된건지 뽀뽀한 서 양화처럼 살려고 해. 마음을 비워야지. 빈칸이 많아야지.”  
삼 자제가 만행이었던 것일까. 걸림 이 없었던 그는 54년 성우로 출발하여 거쳐보지 않은 방송사가 없다. 83년 고 장삼문 사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방송가에게 대해 자문한 것이 인연이

# “매사 욕심이 탈... 회향하는 방송 만들기 주력” ‘방송가 인간문화재’... 佛放 종소리 시보 제안

그러나 그는 육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고달프면 맨발로 인도전 역을 걸어다녀했던 부처님의 49년을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때 그의 눈빛은 새벽별을 맞는 수행자의 모습처럼 빛 난다.  
새벽 3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4시가 되면 집안에 있는 종은종 백련사에서 아침예불을 올린다는 박위원의 생활철 학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집착없는 생활이 활력

“나이? 세월가는 거, 생일, 집 전화변 호도 몰라. 사는 것은 꿈을 꾸는거지. 젊었을 때 낙산사에서 일출사진을 찍으 러다 비단봉에 빠져버렸어. 그런데 웃 음이 나와, 허허 해드는 걸 마음에 두면 되지 사진찍어 뭐하겠어?”  
살다간 흔적을 남기면 안된다는 박위 원은 왜 그렇게들 서로 물고뜯고 치고

왜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면 함께 하겠 다’는 마음을 굳혔다. 불교방송에서 일 하게 된 것이다.  
불교방송 개국과 더불어 가장 먼저 고안한 것이 시보였다. 타 방송처럼 디 지탈로 ‘띠 띠 띠’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박위원은 고집을 부렸다.  
‘차임벨소리 벨(종소리)’으로 하자고. 반대도 많았다. 종소리는 울림때문에 0.05초가 늦어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그는 “죽어도 해야 한다”고 버텼다.  
“원래는 아날로그로 해야 원음이 나 오는데 어쩔 수 없이 디지털로 해서 구 워버렸지. 그래서 지금 종소리는 70% 까인 소리야.”

그는 불교방송의 시보에서 나오는 종 소리에 부처님의 8만4천 법문이 들어있 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런 고 집 때문에 시보가 전세계 방송가의 화 제가 됐고 일본 NHK는 불교방송의 특

색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요즘 박위원은 KBS 2TV 역사극인 ‘장녹수’의 후편으로 7월부터 방송될 ‘서궁’에 무불스님으로 텔레트까지 걸 하게 됐다.  
“한달간이나 고사했는데도 결국 출연 하게 됐지. 어찌나 PD가 끈질기던지. 전법을 위해 부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나 하는 생각이 드니 할 땀눈데까지 해 야겠다 마음먹었지.”  
한번 촬영에 일주일음 강행군 하는데 동등이를 휘두르고 지붕 위에서 뛰어내 리는 등 연기도 만만치 않아서 온몸에 파스가 더덕더덕 붙어있다.

### TV에 스님으로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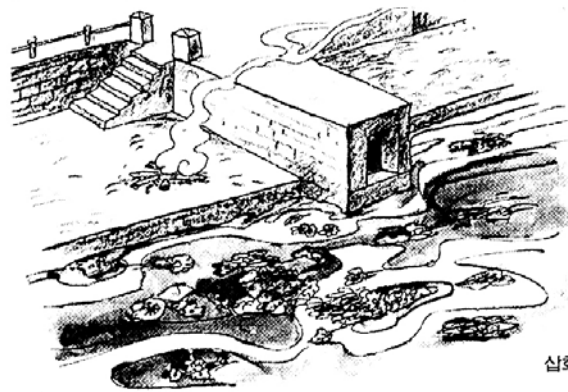
전날 승주 선암사 로케에서는 24시간 동안 한기도 못먹고 촬영했다. 어둠이 내리자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피곤에 지쳐 떨어져 버리는데 박위원은 육순의

나이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인해 선암사 주지 지허스님은 “종웃만 안 입 었지 영락없이 중이야”라며 혀를 끌끌 찼다고 한다.

“죽으면 늘어지게 잠잘텐데 자결해도 꿈꾸고 있다”는 그는 91년 폐암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사형선고를 받았다.  
“아,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의사가 더 사색이 됐지. 살 겠다고 하면 죽고, 죽음을 초연히 받아 들이면 사는거야.”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나즈막히 선 구처럼 읊조린다.  
“매사에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탈 이 난거야. 마음의 경계를 놓아버리고 갖고 싶다는 마음의 창살도 버려야 해. 쓸데없는 허욕 버리고 사랑도 보시해야 지. 안주려고 하니가 정과 신이 괴로운 거야...”

김원우 기자



삽화 · 이기선

## 국토보존 기여하는 보살되자

태어남이 죽음이 괴로울 것이요, 죽음이 태어남이 괴 로울 것이다. 생사는 괴로운 것이다. 영원히 살려고 온갖 일들을 꾀해보지만 태어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만나게 된다. 삶 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삶은 고훈에 떠도는 일엽편주다. 파 도와 풍랑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다. 어디 한 순간인들 편 안할 겨를이 없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생이지만 그래도 살 아야 한다. 그러나 고생이라도 저승보다 이승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그런데 죽음이란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호흡 이 끊어진 상태이거나 심장이 멈춘 경우를 말할 것이다. 머 문 이후의 저승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사후세계의 꿈에 관 심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도 많고 죽은 뒤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죽음 의 세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죽은 뒤에 남아 있는 몸통이 어떻게 처리하 는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한다. 보통 사체처리란 장례 행위를 말한다. 옛날 왕들과 고관대작들은 순장을 하였고 고 한다. 죽음을 당한 사체처 리는 매장하든 화장하든 살아있는 인척 근위들은 생매장을 당하면서 순장이란 명에스런 (?) 이름이 붙는다 하더라도 참혹하기 이를데 없다.

### 매장 유교적 사고방식

옛부터 죽음을 처리하는 방 법이 밋으로 나누어져 있다. 매장, 화장, 수장, 천장, 야장 등이 그것이다.  
티벳 사람들은 천장을 한다 고 한다. 사체를 돌산에 걸어 올려 난도질을 하여 새들이 주워 먹기에 알맞도록 하여 뿌려 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장법을 조장(鳥葬) 또

는 하늘에 흩뿌린다 하여 천 장(天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이 잔혹한 행위인 듯 하다. 그렇지만 티벳 사람들 은 본래 원소대로 빨리 환원 시키려면 이 방법이 최상의 길이라고 관습화되어 있다. 갠지스강 기슭에는 가트란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③

화장(火葬)

### 부처님 열반후 火葬 사리수습

화장장이 있다. 시체를 나무 더미 위에 올려 놓고 불태워 서 재로 만들어 갠지스 강물 에 띄워 보낸다. 뿐만 아니라 수장이라 하여 몸통이 물을 매달아 강물 속에 빠뜨리거나 또한 시체를 돌산에 유기하는 방법도 있다. 독수리, 까마귀, 여우, 살쾩이 등이 와서 마구 살점을 떼어 먹고 중국에는 앙상한骸골 뼈들이 땅굴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시다림(尸茶林)·한림(寒林)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 개가 매장을 한다. 어떻게 보 면 매장하는 것이 가장 상식 에 가깝게 있는 장법이라고 우길 수 있다. 제일 좋은 방 법이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 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수습한 상식이 아니라 폐해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여 의도의 넓이보다 더 넓은 묘 지가 국토를 잠식한다고 하니 국토의 효용에 있어서 반행위

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토이용에도 도움 이 되고 사후처리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사람이 살려고 한다면 묘역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묘역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살전하지 않으려고 한 다. 자기 욕심이 제 명예가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 신라때 화장 권장 흔적

일찍이 신라시대는 화장법 을 권장한 흔적이 많다. 경주 남산 기슭에 승소곡(僧燒谷)이란 골짜기가 있었다. 여기는 스님들의 장례터였다. 모두 화 장을 하여 사후처리를 한 것 이다. 남산 사천왕사 기슭에 능지탑(陵旨塔)이란 원분이 있다. 이것은 문무왕을 화장한 장소라고 한다. 여기서 화장한 다음 그 유골을 대왕암에 수 장하였다. 화장과 수장을 함께 한 사례라 하겠 다. 뿐만 아니라 경주 골동품 가

계에는 수많은 골호(骨壙)가 있다. 이들 골호들은 당시 사 람들이 화장을 많이 하였다는 실증적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제가 이행되지 않고 권 장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유교적 사고방식과 기독교 신앙으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니 불교 를 믿는 사람도 한번 죽었으면 되었지 또 불에 죽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전도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본사 석가모니부처님도 사리수 습 아래 열반에 드신뒤 화장법 에 의해서 사리가 수습되었고 그 사리를 현존 부처님처럼 숭 앙하고 있지 않나. 누구에게 권장하지 앞서 일본제국이 불 자가 먼저 화장장법에 귀명하 여 국토보존에 기여하는 보살 이 되었으면 한다. 사대오른(四大五蘊)은 환지분처하여 각명 세계(覺明世界)에서 열반락을 누려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경전

## 법구경의 세계

이원집필이  
신국판 / 398쪽 / 7,000원

법구경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 속에는 광활한 불법의 세계와 불교사상의 전부가 담겨 있다.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어려운 불어 문구에 대한 설명을 비롯, 각자의 계승에 맞는 경전 속의 직결된 비유와 예화,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까지 감흥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 법구경의 진수를 읽으면서 체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도서 운 주 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02) 720-5372 · 3 FAX (02) 723-0646

九山禪師 上堂法語

## 九山禪門

九山門徒會 엮음

.....

승보종찰 승광사 조계총림의 초대 방장이셨던 九山禪師의 상당법어를 엮은 『九山禪門』은 스님께서 총림의 수행대중을 위해 설하신 법어 중의 精要, 心地法門으로 한국불교의 우뚝한 봉우리인 九山禪師의 자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한국선의 도도한 흐름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九山禪門』은 수행남자를 비롯해 깨달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긴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624쪽 / 4x6배판, 양장본 / 값 20,000원

불일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1 법원사  
Tel. 736-4003 / Fax. 738-1592

청년을 위한 불어이야기

## 나는 오늘 부처님을 만났다!

이야기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변화되어 갑니다.

이·아·기·보·불·어·선·부·처·님·의·전·기

###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도 두려움도 욕망도 없다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생과사의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인간들에게 모든 번뇌와 잡학을 벗어난 진정한 해탈을 가르쳤던 석가. 그의 구도의 생애와 진리의 가르침을 여겨 담겨진 한다.

김형준지 · 280면 · 5,500원

이·아·기·보·불·어·선·한·우·경

### 코끼리의 눈물

부처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슬이야기?

〈현 우경〉의 내용을 22가지의 재미있는 우화로 풀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안양선의 이슬이야기처럼 쉽고 재미있는 불교우화집!!

고우의지 · 212면 · 5,000원

이·아·기·보·불·어·선·순·타·니·파·아·라

### 살아있는 모든것은 다 행복하라

세상의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경전〈순타니파라〉중에서 주옥같은 법문만을 골라 명쾌한 편안하게 풀어 놓았다. 심란 어떤 것이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삶에 대한 석가의 깊은 성찰이 담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준다.

이희숙지 · 272면 · 5,5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재 2동 320 개평빌딩

☎ 5290140-5 팩스 5792312